

# 美 교수, 수행 체험 교과에 반영 '화제'

### 맥다니엘 교수, '차분하고 신중한 삶' 프로그램 개발

종교학을 가르치는 한 미국인 교수가 태국과 라오스 일대에서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고, 귀국해서는 체험을 토대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화제다.

(Daily Pennsylvanian) 지는 1월 22일 "저스틴 맥다니엘(Justin McDaniel · Arts and Scienc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교수가 태국과 라오스에서 수행자의 삶을 체험한 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맥다니엘 교수는 방학 기간 중 캄보디아 난민촌을 방문해 영어를 가르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AIDS를 예방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접하게 됐다.

"난민촌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들의 종교인 불교와 문화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는 맥다니엘 교수는 "특히 캄보디아 난민촌 거주자들이 불교라는 사유에 근거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아이들이 단기출가를 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저스틴 맥다니엘 교수는 태국과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계기로 불교에 귀의, 수행자의 삶을 체험한 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맥다니엘 교수(사진 왼쪽)와 석발하고 가사를 입은 맥다니엘(사진 오른쪽)



### 태국·라오스서 수행자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 학생과 교감 학생들 "내면의 밝은 면 드러나"

내 자신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다"며 "또한 타인과의 교류를 어떻게 할지,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등도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수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울 수 있었던 점도 이번 체험의 소중한 배움이었다.

"가르치는 일은 훌륭한 직업이지만 그에 상응해 커다란 책임도 따른다"고 전제한 맥다니엘 교수는 "교육이란 단지 성장이나 성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은 '다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며, 배움과 실천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맥다니엘 교수는 태국과 라오스에서 수행자 체험을 토대로 '차분하고 신중

한 삶: 수행자 그리고 사색적인 삶(Living Deliberately: Monks, Saints and the Contemplative Life)'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Arts and Scienc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재학생에게 제공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케틀라인 벨트렌(Carolina Beltran · 1학년) 씨는 "교수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에게 '다르게 생각하기'를 중요하게 요구한다"며 "교수의 낮은 교육에서 당혹보다는 열정을 더 느껴진다"고 말했다. 제임스 앤(James An · 4학년) 씨 역시 "교수님의 프로그램은 우리 내면의 밝은 면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것 같다"며 "교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태국 호랑이 사원 100마리 포획 물의

### "동물학대·불법 밀매 의혹...조사 중"



스님과 호랑이가 함께 공존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태국 '호랑이 사원'이 사실은 동물학대와 불법 밀매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과 호랑이가 함께 공존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태국 '호랑이 사원'이 사실은 동물학대와 불법 밀매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언론 Takepart는 2월 8일(현지시간) "태국 공무원들은 태국 캄짜나 부리 '왓 푸앙 타 부아 사원'의 호랑이 100마리를 포획해 사원 승려들이 불법적으로 사육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태국 지역환경관리단체는 호랑이 사원이 호랑이를 기르기 위해 합법적 허용 절차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호랑이 사원은 멸종위기에 놓인 38마리의 인도 토종 코뿔새와 늑대를 불법적으로 사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태국 공무원들은 "우리는 멸종위기에 놓인 코뿔새 38마리를 포획했으나, 사원 앞 우리에 갇혀있던 늑대 두마리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찰 측으로부터 늑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랑이 사원은 승려와 호랑이가 평화롭게 공존해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10여 년 전 죽어가는 새끼 호랑이를 발견한 주민이 사원 승려에게 호랑이를 부탁했고 그 후 하나 둘 늘어난 호랑이가 사원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됐다.

사원 측은 "호랑이들은 우유로 자랐기 때문에 야생성은 통제됐다. 먹이도 피를 빼고 개 사료와 함께 먹여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순한 호랑이로 길들여졌다"고 강조하며 한화 약 3만6천원의 입장료를 받으며 관광객을 유치했다.

관광객들도 인터넷상에 호랑이와 기념촬영을 한 사진들을 올려 호랑이 사원은 더욱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동물애호가들의 의심의 눈빛은 벗어날 수 없었다.

호랑이 사원을 주시해온 국제동물보

호단체인 '케어 포 더 와일드(Care for the Wild)'는 3년간 비밀 조사 결과를 밝혔다. 태국 법상 호랑이를 사육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간주되지만 사원 측은 나이 든 호랑이와 라오스 밀수 시장의 어린 호랑이를 밀교환한 것이다.

케어포더와일드는 "호랑이 사원은 불법적으로 호랑이를 국제적 밀거래를 했으며, 호랑이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가위날고 사육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호랑이들은 섬서 40도에 달하는 고온의 그늘 하나 없는 곳에 쇠사슬로 묶여 기진맥진한 상태로 알려졌다. 케어포더와일드는 "이런 날씨에도 사원 측은 호랑이들에게 물조차 주지

### 멸종위기 새·늑대도 불법 사육 "밀거래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가위"

않는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호랑이에게 마취제를 투여, 잠을 재운 뒤 사진 촬영을 한다"며 "약물 중독으로 병든 호랑이는 폐기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 여행 블로거인 브야스(Ruchika Vyas)씨는 지난 1월 "호랑이를 보기 위해 약 15달러를 지불하고, 호랑이에 의해 부상을 당해도 사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한 후 입장할 수 있다"며 "직원들은 호랑이가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진정제가 투여된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직원들이 호랑이의 꼬리를 아무렇지 않게 당기거나 손과 막대기 등으로 세계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몇몇은 호랑이를 도구처럼 생각하며 위에 앉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냐는기자 oasis1983@hyunbul.com

## 美 여성불교계 대모의 삶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The Silent Dance of Life'...2016년 상영 예정

미국 여성불교계의 대모 루스 데니슨(Ruth Denison · 94) 법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장편 다큐멘터리, 'Ruth Denison - The Silent Dance of Life'가 제작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Lion's Roar) 지는 2월 11일 "영화 감독 알렉산드라 코모렉(Aleksandra Kumorek)이 지난 4년간 루스 법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며 "루스 특유의 심오함과 유쾌함을 담은 1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제작됐고, 1년간의 편집, 수정 과정을 거쳐 2016년 대중에게 개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루스 법사는 40여 년 동안 위빠사나 명상을 보급하는 데 일생을 바친 불교지도자이다. 나치 독일 치하와 소련 강제수용소에서 성장기를 보낸 루스는 1957년 미국으로 망명해 앨런 왓츠(Alan Watts)와 알도스 헉슬리(Aldous Huxley) 등과 교류하며 불교에 귀의했다.

1971년 버마 상좌부 지도자 우 바 킨(U Ba Khin)의 지도를 받은 루스는 모하비 사막에 위빠사나 명상센터 담마 디나(Dhamma Dena)를 개원, 잭 콘필드(Jack Kornfield) 등과 교류하며 위빠사나 명상 보급에 매진했다

미국에서 여성만의 '여성불교수련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루스 법사는 넘치는 에너지와 전통을 벗어나 음악 리듬, 첼트 소리, 춤 등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창의적인 명상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졌다. 루스 법사에게 불교를 배우고 법사나 명상 지도자가 된 여성은 아야 케마 (Ayya Khema), 샌디 부셰(Sandy Boucher) 등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다.

"루스는 미국에서 여성불교를 이끈 1세대 지도자들의 수장"이라고 전제한 샌디 부셰(Sandy Boucher) 법사는 "루스의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일깨운 여성 불자들이 많다"며 "이는 미국 사회



미국 여성불교계의 대모 루스 데니슨(Ruth Denison · 94) 법사

에서 불교 특히 상좌부 불교와 위빠사나 명상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말했다.

(Lion's Roar) 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루스 법사의 다큐멘터리는 독일의 영화 제작사인 '노르트메디아(Nordmedia)'의 후원으로 했다. 그러나 제작된 영상을 편집하고 완성한 후 각 극장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후원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2016년 상영을 목표로 '인디

고 캠페인(Indiegogo Campaign)'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알렉산드라 감독은 "이를 통해 3~1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해, 루스 법사의 다큐멘터리 후반부 작업을 성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스 법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The Silent Dance of Life' 제작 관련 후원은 indiegogo.com/projects/ruth-denison-the-silent-dance-of-life을 방문해 가능하다.

오종욱 편집위원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샐  
단독입점**

##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샐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 북 용 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 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 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샐 TEL 02)2004-8216**